

# 아시아 도자문화 Asian Ceramic Culture

국립광주박물관 뉴스레터 제11호  
Gwangju National Museum Newsletter



백자 코끼리 모양 손잡이 병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 CONTENTS

### 02 커버 스토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중국 도자기,  
'데이비드 병'\_스징페이

### 05 封面故事

世界最著名的中國陶瓷作品：  
'David Vases'\_施靜菲

### 07 도자 전시

태평정<sub>太平亭</sub>과 양이정<sub>養怡亭</sub>\_조은정

### 08 도자 발굴

음성 감곡C.C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_이충렬

### 10 국립광주박물관 소식

#### 11 中文·日文 要約

#### 12 English Abstract

창간일 2018년 3월 30일

발행일 2020년 9월 25일

발행 국립광주박물관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기획·편집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

문의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 최명지  
TEL 062\_570\_7036  
FAX 062\_570\_7066  
MAIL gnmcad@korea.kr

원문(PDF 파일)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  
[gwangju.museum.go.kr](http://gwangju.museum.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는 퍼시벌 데이비드 재단에서 영국박물관에 영구 기탁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청화백자 화병'을 소개한다.

#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중국 도자기, ‘데이비드 병’

The David Vases: The best-known Chinese Porcelain in the World

**스칭페이** 施靜菲 Shih Chingfei

국립대만대학교 예술사연구소 교수 國立臺灣大學 藝術史研究所 教授

National Taiwan University, Graduate Institute of Art History Department, professor  
shihcf@ntu.edu.tw

20세기 초 여러 곳을 거쳐 영국으로 전해진 ‘데이비드 병’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중국 도자기다. 이 작품이 대형의 청화백자(높이 63.6cm)라서, 혹은 유명한 영국의 퍼시벌 데이비드 중국예술재단(The Percival David Foundation of Chinese Art)의 소장품이라서 유명한 것이 아니다. 이 병의 목 부분에 제작년대(원대 至正11年, 1351년)가 청화명문으로 쓰여 있고, 세계 청화백자의 시작을 보여주는 기념작이기 때문에 명성을 얻은 것이다. 연구자들은 표준이 되는 이 작품의 양식 분석을 통해, 원대 청화백자를 판별해냄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청화백자의 중요한 기원을 알려주었다. 이 작품을 둘러싼 문제는 책 한 권 분량으로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작품의 소장 경위와 도자사 연구에 있어 그 의미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영국에 밭을 디딘 ‘데이비드 병’의 역사

‘데이비드 병’을 영국에서 최초로 수집한 기록은 1927년으로 엘핀스톤(Hon M. W. Elphinstone, 1871~1957)이 소장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영국박물관의 동방문물부 부장이었던 홉슨(R.L. Hobson)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1929년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하였다. 이후, 데이비드 경이 영구 소장하게 되면서 ‘데이비드 병(David Vases)’로 불리게 되었으며, 중국어로는 ‘지정대병(至正大瓶)’이라 부른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청말민초(清末民初) 동란 때, 중국 문물은 청나라 궁정 및 각지의 철도와 건설 공사 도중에 대량으로 유출되었다. 데이비드 경(Sir Percival David, 1892~1964)도 그 당시 중국을 방문하여 각 루트를 통해 다양한 중국 자기를 영국으로 가지고 갔고, 빛날 런던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퍼시벌 데이비드 중국예술재단을 설립하였다. 이후 데이비드 재단이 진귀한 소장품들을 런던 SOAS 대학에 기증하였고, 이 작품들은 1952년부터 고든스퀘어(Gordon Square) 10번지에 위치한 갤러리에서 첫 공개한 이후, 2007년까지 이어졌다. 1,700여 점에 가까운 소장품들은 이후 영국박물관에 영구 기탁되었고, 2009년 전시실이 오픈되었다.

재단의 소장품은 청나라 궁정이 베이징 염업은행(鹽業銀行)에 저당 잡힌 물건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관요급의 고급품들이었다. 또한 상당수의 소장품에 명문이 있는데, 이는 데



〈백자 코끼리 모양 손잡이 병[青花象耳大瓶]〉, 1351년  
높이: 63.6cm, 퍼시벌 데이비드 재단



↑ 소장품 번호 B613 명문 세부

↓ 소장품 번호 B614 명문 세부

이비드 여사(Lady David)가 데이비드 경이 기념명문이 있는 작품들을 즐겨 소장하였다고 특별히 이야기했던 것과 연관이 있다.

데이비드 재단의 마가렛 메들리(Margaret Medley, 1918~2000) 관장은 그의 저서에서 ‘데이비드 병’의 영국 내 소장경위를 밝혔다. 이 작품의 소장번호는 각각 B613번과 B614로 그 중 B614번은 엘핀스톤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데이비드 경의 소장품 중 약 200점은 모두 엘핀스톤에게 구입하였다. 나머지 B613번은 엘핀스톤이 찰스 러셀(Charles Russell)에게 넘겨준 것으로 1935~36년 런던 중국예술국제전시에 출품되었다가, 1935년 데이비드 경이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360파운드에 낙찰받았다. 데이비드 경의 손에서 두 작품이 다시 만나 원래의 ‘한 쌍의 화병’으로 완성되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 왔던 길을 찾아 나서다—강서 무원현 영순묘 성원조전의 공물

소장 배경 외에 데이비드 병의 목 부분에 적힌 명문 내용은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받았다. 명화한 기년(紀年)과 함께 제작배경, 공기(供器)로서의 용도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병의 청화 명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장품 번호 B613** 신주로(信州路) 옥산현(玉山縣) 순성향(順城鄉) 덕교리(德教里) 형당사(荊塘社) 출신의 봉성제자(奉聖弟子) 장문진(張文進)이 향로와 두 개의 화병을 가정의 태평과 자녀의 평안을 위해 시주합니다. 지정11년(1351) 4월 길일에 바칩니다. 성원조전(星源祖殿) 호정일원수(胡淨一元帥)에게 바칩니다.

**소장품 번호 B614** 신주로(信州路) 옥산현(玉山縣) 순성향(順城鄉) 덕교리(德教里) 형당사(荊塘社) 출신의 봉성제자(奉聖弟子) 장문진(張文進)이 향로와 두 개의 화병을 가정의 태평과 자녀의 평안을 위해 시주합니다. 지정11년(1351) 4월 좋은 날 삼가 기록합니다. 성원조전(星源祖殿) 호정일원수(胡淨一元帥)에게 바칩니다.

두 개의 명문은 대체로 같으며,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러 해 동안 우리는 이 명문을 글자 그대로 ‘지정11년(1351), 강서 신주로 옥산현 순성향 덕교리 형당사의 도교 신자인 장문진은 한 세트의 향로와 화병을 주문 제작해 성원조전의 호정일원수에게 바쳤다.’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지방지(地方志)의 재간행 및 네트워크자원[E-research]의 발전에 힘입어 ‘데이비드 병’에 대한 명문 해독이 급진전되고 있다.

황웨이[黃徽]와 황청화[黃清華]는 현지조사를 통해 이 병의 공양지였던 ‘성원조전’의 도교 사원이 바로 무원현(婺源縣)의 영순묘[靈順廟, 혹은 오현묘(五顯廟)]임을 확인하였다. 린예창[林業強]은 이를 토대로 역대 지방지 자료에 근거하여, ‘데이비드 병’은 줄곧 무원현에 봉안되었다가 20세기 초 사람들에 의해 베이징으로 옮겨졌고, 다시 영국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추정한 바 있다. 비록 자세한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 우리나라[吳資熙]가 베이징의 지화사(智化寺)에 모셔져 있던 이 병을 영국으로 빼돌렸다는 풍문은 잘못 알려진 것이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명 표준작, ‘데이비드 병’

‘데이비드 병’은 기념명 작품들이 발견되기 전까지 원대 청화백자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유일하게 연대를 알 수 있는 표준작품이었기 때문에 장식 스타일 및 제작특징이 다른 작품의 시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이 유명한 한 쌍의 큰 병은 높이가 63.6cm이고 기형이 같

퍼시벌 데이비드 재단 갤러리의 원래 장소인 고든스퀘어 10호





영국박물관 Room 95 퍼시벌 데이비드 재단 전시실

며, 금속기를 본뜬 것이 분명하다. 예리하게 꺾이는 각도부터 구연에서 저부까지 이어지는 여러 개의 돌출된 윤곽선 및 코끼리 형상의 고리(금속 고리는 이미 깨져서 없어짐)를 보면, 청동기의 기형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대형 도자기 병은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지만, 동시대 흑도기를 본 뜯 것에 비슷한 기형이 있었으며, 이는 명·청시대까지 이어졌다. 이 두 점의 대형 병은 장식도 거의 유사하고, 세부적인 면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가령 용무늬가 하나는 입을 열고 있는 형상, 하나는 입을 다물고 있는 형상이며, 봉황의 경우 한 점은 모두 위로 날아가고 있으며, 나머지 한 점의 봉황은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향하고 있다. 저부의 변형 연판 안에 그려진 잡보(雜寶)의 배열도 동일하지 않다.

15세기(명대) 청화백자에 대한 서양의 인식은 데이비드나 브랭크스턴(A. D. Brankston)처럼 중국을 직접 다녀온 서양의 학자 및 수집가들의 소개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들의 지식은 중국의 감상 전통에 기초를 두었지만, 당시 원대의 청화백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존 에어스(John Ayers)는 1950년대 글인 “초창기 중국 청화백자(Early Chinese blue-and-white)”의 첫머리에 원나라 청화백자를 명나라 도자기로 오판하는 경향은 박물관의 전시품 카드, 혹은 일부 특별전시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원나라 청화 작품은 모호하게 13~14세기로 편년되거나, 혹은 ‘송·원대’ 혹은 ‘명대’로 지정되었다. 예를 들어 윌리엄 배우어 허니(William Bowyer Honey)는 1945년 출판된 그의 저서 『중국 및 극동의 도예(The Ceramic Art of China and Other Countries of the Far East)』에서 원대 청화를 15세기로 편년하여 다른 명대 초기 작품과 함께 설명하였다. 동아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다. 쿠시 타쿠신(久志卓真)은 1943년 『중국의 명대 초기 도자도감(支那明初陶磁図鑑)』의 책에서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 점의 원대 청화백자를 명대 초기로 편년하였다.

해리 가너 경(Sir Harry Garner)은 흡수이 ‘데이비드 병’을 세상에 소개하였을 때,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작품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보편적으로 14세기 중반의 작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음은 물론, 한때 위작이라고 의심을 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가너는 동시기의 다른 학자들과 ‘데이비드 병’의 양식비교를 통해, 명대에 앞선 청화백자의 그룹을 점차 인식하게 되면서 원대 청화백자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 가장 클래식한 양식 연구의 모델

미국 프리어 갤러리 미술관의 존 포프(John Pope)는 1952년과 1956년에 두 권의 기념비적 저서를 출판하였다. 책에서 중국 고문헌의 정리와 산발적인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이 ‘데이비드 병’을 표준 작품으로 삼아 터키의 ‘토카피 사라이 박물관’ 및 이란의 ‘아르데빌 신전’ 소장의 원대 청화백자를 세상에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비로소 ‘데이비드 병’이 유일한 예가 아니며, 여러 믿을 만한 사례들 중의 중요한 하나가 된 것이다. ‘데이비드 병’에 대한 연구는 도자사 양식 분석의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병의 중요성도 이때부터 정립되면서 중국 도자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남게 되었다.

〈청화 용무늬 병[元青花龍文大瓶]〉

높이 44.5cm

터키 토카프 사라이 박물관



本期將介紹大衛德中國藝術基金會永久捐贈給大英博物館的世界最著名的"青花白瓷花瓶"。

# 世界最著名的中國陶瓷作品： 「David Vases」

施靜菲 國立臺灣大學藝術史研究所 教授

二十世紀初輾轉流傳到英國倫敦的一對「至正大瓶」可說是世界最著名的中國陶瓷作品。它的得名並非因為是大型青花瓷作品(高63.6公分)，或是收藏在知名的英國大衛德中國藝術基金會(The Percival David Foundation of Chinese Art)，而是器頸上的青花銘文自訴了製作年代(帶有中國元代至正十一年(1351)款)，並因此成為標示青花瓷發展里程碑的紀年標準器。學者對此標準器進行風格形式分析，辨識出元代青花瓷，讓世人理解世界青花瓷的重要根源。圍繞該作品的相關議題值得用一本書的篇幅來進行探討，本篇短文僅在介紹該文物之收藏經過，並略述其在陶瓷史研究上的意義所在。

## 一、至正大瓶落腳英國的履歷

「至正大瓶」在英國最早的收藏紀錄是1927年，原屬艾爾芬司頓(Hon. M. W. Elphinstone, 1871–1957)所有。因為作品本身帶有清楚的年款，讓當時大英博物館的東方文物部部長霍布森(J. L. Hobson)查覺到其重要性，於1929年首度介紹給世人(R. L. Hobson, "Blue and White before the Ming Dynasty: A Pair of Dated Yuan Vases." Old Furniture, vol.6, no.20(1929), pp. 3–8.)。之後輾轉由大衛德爵士永久收藏，因此被暱稱為「David Vases」，即「大衛德瓶」，中文通常稱為「至正大瓶」。

在距今一百年前清末民初動亂時期，中國文物從清宮及各地鐵路興建工程中大量外流，大衛德爵士(Sir Percival David, 1892–1964)也在當時到訪過中國，透過各種管道輾轉將許多精美的瓷器帶回英國，後來在倫敦成立聞名全球的大衛德中國藝術基金會，該收藏可以說是兩岸故宮之外、世界上中國陶瓷最重要的收藏之一。後來大衛德基金會捐贈給倫敦大學亞非學院(SOAS)，並且同時設置大衛

德中國與東亞藝術講座教授(現在仍然持續存在於亞非學院)，1952年起於位於高登廣場(Gordon Square)10號的展廳公開展示，至2007年關閉。其近1700件典藏品後來全部永久寄存大英博物館展示，展廳於2009年開幕。該基金會主體收藏來自清宮抵押給北京鹽業銀行的抵押品，因此大多數為官窯品級的精品，數量雖遠不及兩岸故宮，但品質卻不相上下。此外，很大比例的藏品都帶有銘款，大衛德爵士夫人(Lady David)就曾特別提到大衛德爵士喜好收藏有紀年銘款的作品。因此，「至正大瓶」也應當在這樣的脈絡下理解。

大衛德基金會的館長梅德麗(Margaret Medley, 1918–2000)在其著作中，曾提供「至正大瓶」在英國的收藏經過(Medley, Margaret. The Chinese Potter. London: Phaidon, 1976)。它們的收藏編號分別是B613、B614，其中一件(B614)直接來自艾爾芬司頓的讓售，大衛德爵士的收藏中約有200件都來自艾爾芬司頓；另外一件(B613)則是艾爾芬司頓轉手給魯塞爾(Charles Russell)，曾在1935–36年倫敦中國藝術國際展覽中展出，後來1935年大衛德爵士在倫敦蘇富比拍賣會上以360英鎊購得。在大衛德爵士的手中，這兩件作品再度重逢，還原為成對的花瓶，直到今日。

## 二、追尋來時路：江西婺源靈順廟星源祖殿供器

除了收藏背景之外，至正大瓶頸上的銘文內容更是受關注的焦點，除了有明確的紀年外，也對了解製作的背景、及作為供器的用途等相關問題提供重要的資料。此對青花大瓷瓶頸部上的青花銘文，謄錄如下：

文進，喜捨香爐花瓶一付，祈保合家清吉、子女平安。至正十一年四月吉日捨，星源祖殿胡淨一元帥打供。

館藏編號B614

信州路玉山縣順城鄉德教里莉塘社奉聖弟子張文進，喜捨香爐花瓶一付，祈保合家清吉、子女平安。至正十一年四月良辰謹記，星源祖殿胡淨一元帥打供。

兩件的銘文大致相同，僅稍有出入。多年來我們多從字面上解讀，至正十一年(1351)江西信州路玉山縣順城鄉德教里莉塘社的道教信徒張文進訂製一套香爐花瓶，供奉星源祖殿胡淨一元帥。然近年來，得力於中國地方志的重刊出版以及網路資源(E-research)的應用，有關至正大瓶的銘文解讀有了突破性的發展。

黃薇、黃清華考察確認了供奉地「星源祖殿」道觀就是婺源縣的靈順廟(又名五顯廟)(黃清華、黃薇，〈至正十一年銘青花雲龍瓶考〉，《文物》2010-4，頁64-76)。林業強在此基礎之上，據歷代地方志材料推測，至正大瓶極可能一直被供奉在婺源縣，直到二十世紀初被人帶到北京，再輾轉運到英國(Peter Y. K. Lam, "The David Vases Revisited: Annotation Notes of the Dedicatory Inscriptions," Orientations, vol.40, no.7 (2009), pp.70-77)。雖然詳細過程仍不甚明朗，但他對於過去傳說吳賚熙將原被供奉在北京智化寺的這對大瓶盜賣至英國之說法，認為是訛誤傳說，應當修正。

### 三、重量級的紀年標準器

在考古工作尚未發現其他紀年作品之前，至正大瓶一直是元青花瓷最重要、甚至是唯一的一對紀年標準器，裝飾風格及製作特徵，成為判斷其他作品時代的重要關鍵。這對著名的大瓶，瓶高六十三點六公分，兩件器形一致，明顯仿自金屬器，不論尺寸、器形或繁複的裝飾都相當突出。從尖銳的折角、口沿到足底數道突出的脊線和象耳銜環(金屬環已殘破不存)，都可看出它們與青銅器形的密切關係。類似的大瓷瓶在此之前未曾出現，同時代仿古黑陶器有近似的器形，到明清時亦有延續。兩件大瓶的裝飾亦幾乎一模一樣(僅少數細節有所差異，例如龍紋一張口、一閉口；鳳凰一件是皆往上飛、一件則是一上一下；足底變形蓮瓣中的雜寶排列亦不完全相同)，全器由上到下分層裝飾繁複的青花紋飾，如纏枝菊花紋、鳳凰紋、雲龍紋、波濤紋、牡丹紋，一直到變形蓮瓣紋。

西方對十五世紀(明代)青花瓷的認識，得力於像大衛德及布

蘭克斯頓(A. D. Brankston)這類親自到過中國的西方學者或收藏家的介紹，他們的知識根基於中國的鑑賞傳統。然而，當時對於元代的青花瓷還是懵懂無知。艾爾斯(John Ayers)在其1950年代的文章“Early Chinese blue-and-white”開頭中便寫到，將元青花誤植為明代陶瓷的趨勢，在博物館的展覽品名卡、或是一些特展中都經常可見。在當時，大多數的元青花作品被籠統地定為十三至十四世紀，不然就是「宋元」或是「明代」。例如而哈尼(William Bowyer Honey)在1945年出版的著作The Ceramic Art of China and Other Countries of the Far East中，則將元青花定為十五世紀，與其他明代早期作品同列。東亞的情況也類似，久志卓真1943年著的《支那明初陶磁圖鑑》一書中，好幾件日本收藏的元青花被定為明代早期。

迦納爵士(Sir Harry Garner)指出，至正大瓶被霍布森介紹給世人時，由於是孤例，大多數人都持保留的態度，並未被普遍接受是十四世紀中期的作品，也曾經被懷疑是贗品(Harry Garner, Oriental blue and white (London: Farber and Faber, first published in 1954, second edition, 1964), pp. xv-xvi.)。迦納與其他同時期的學者(例如John Ayers, Shirae and Cox)藉由與至正大瓶的風格比對，才逐漸辨識出一群早於明代的青花瓷，確認元青花的存在。

### 四、最經典的風格研究案例

然而，一直要等到美國弗利爾美術館(Freer Gallery of Art)的約翰波普(John Pope)1952年及1956年兩部里程碑式著作的出現(Pope, John A., Fourteenth-century Blue-and-White: A Group of Chinese Porcelains in the Topkapı Saray Museum, Istanbul, Washington: Freer Gallery of Art, 1952; Chinese Porcelain from the Ardebil Shrine, Washington: Freer Gallery of Art.),爬梳中國古文獻，佐以零星的考古證據，以至正大瓶為標準器，將土耳其托布卡比·莎萊(Topkapi Saray)博物館以及伊朗阿岱比爾神廟(Ardebil Shrine)收藏的元青花瓷介紹給世人，這對大瓶才從孤例變成有許多可靠夥伴的關鍵之作。這項研究不但成為陶瓷史風格分析的典範之作，而至正大瓶的關鍵地位也自此奠立，成為中國陶瓷史上最重要的作品。

이번 호는 고려시대 청자로 만든 건축재를 전시한 고려청자박물관의 특별전을 소개한다.

# 태평정과 양이정 養怡亭

The Taepyeongjeong and Yangijeong Pavilions

조은정 曹銀精 Cho Eunjung

고려청자박물관 학예연구사 高麗青瓷博物館 學藝研究士

Goryeo Celadon Museum, Associate Curator

cej3722@korea.kr

**전시기간** 2020년 8월 7일(금)~2020년 11월 15일(일)

**장소** 고려청자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유물** 강진과 부안 청자기마터 출토 청자기와, 청자판 등 110여 점

고려청자박물관은 고려시대에 청자로 만든 건축재인 청자기와[青磁瓦]와 청자판(青磁板) 유물을 모아 ‘태평정과 양이정’이라는 특별전을 지난 8월 7일부터 개최하고 있다. 청자 건축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것으로 전시는 11월 15일까지 이어진다.

국내 최초로 열리는 고려시대 청자 건축재 전시는 작년 고려청자박물관 서쪽 편 건물지 조사에서 ‘태평[大平]’명 청자기와가 발굴되면서 기획된 것이다. 고려시대 청자기와는 『고려사』에 개성에 있었던 양이정(養怡亭) 지붕을 청자기와로 이었다는 내용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양이정이 있었던 수덕궁(壽德宮)에는 태평정(太平亭)이라는 정자도 있었으며, 문헌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태평정의 청자기와 사용을 실물로 입증해주는 중요한 유물을 발견한 것이다. 고려, 조선시대에는 태(太)자를 대(大)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조선시대 개경 관련 문헌에 태평정(太平亭)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는 ‘태평(大平)’이지만 ‘태평’으로 읽는 것이 옳다.

역사적으로 자기(磁器)로 건축재를 만들어 사용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고려가 유일하다. 자기 제작기술을 건축재에 접목시키려는 발상의 전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실험을 거쳐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된 기술발전 과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자기와는 건물의 규모와 지붕의 면적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청자기와가 완성되었을 때 수축하는 비율과 무게까지 미리 계산해 크기를 규격화해 제작했다. 청자판 역시 얇은 것은 0.4~0.5cm, 두꺼운 것은 2.5cm 이상으로 만들면서도 편평하게 구울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전시유물 중에는 강진뿐만 아니라 부안에서 생산한 청자 건축재도 있으며, 강진 월남사지 출토 일반 토제기와와 청자기와의 크기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전시하여 청자기와 건물의 규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명문(銘文)이 새겨진 편도 전시하고 있다. ‘태평(大平)’과 함께 ‘서루(西樓)’가 새겨진 기와도 있는데, 이 서루는 고려 왕실의 이궁(離宮)중에 하나였던 장원정(長源亭)의 서루(西樓)이다. 장원정은 1056년에 완공되었으며, 이후 여러 왕 중에 의종(毅宗)이 가장 많이 행차했었다.

또 다른 청자기와에는 ‘일촌오분(一寸五分)’과 같이 숫자와 함께 촐(寸), 분(分)과



‘태평’ 명문 세부 →

〈청자 모란 넝쿨무늬 ‘태평’명 기와〉 ↓

고려 12세기, 길이 46.5cm

강진 사당리 ‘가’구역 출토



같은 길이 단위가 새겨지거나 숫자만 표기된 것도 있으며, 이러한 숫자는 아마도 청자기와를 만들 때에 수축률을 나름의 방식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청자 건축재 사용이 그 동안 최고 권력자만이 누릴 수 있었던 호사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유일한 자기 건축재의 완성과 예술작품으로 승화된 고도의 제작기술을 증명하는 문화유산임을 강조하고 있다.

도자 관련 최신 발굴 성과를 소개하는 코너로, 이번 호는 충청북도 음성에서 조사된 2기의 청자가마터 발굴성과를 공개한다.

# 음성 감곡C.C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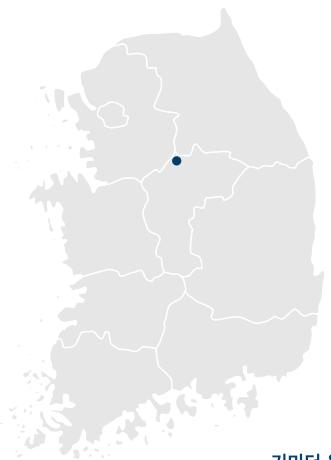
Survey of Remains Found at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Gamgok Country Club in Eumseong

**이충렬** 李忠烈 Lee Chungryul

국방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장 國防文化財研究院 調查研究組長  
Korea Research Institute of Military Heritage, Head Researcher  
hafun@hanmail.net

## 조사개요

조사명	음성 감곡C.C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조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산 83-1번지 일원
조사기간	1차 2015년 6월 18일 ~ 2015년 9월 25일 2차 2019년 10월 21일 ~ 2020년 1월 31일
의뢰기관	(주)감곡개발, (주)테라
조사기관	(재)국방문화재연구원



가마터 위치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 조사경위

감곡개발 주식회사는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산83-1번지 일원에 음성 감곡C.C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유물산포지 6개소 117,889m<sup>2</sup>(표본조사 84,084m<sup>2</sup>, 시굴조사 33,805m<sup>2</sup>)를 확인하였으며, 각 지점에 대한 매장문화재 조사는 사업단계에 따른 토지보상 및 지장물의 상태에 의해 1차 조사는 2015년 6월 18일부터 2015년 9월 25일까지 진행하였고, 2차 조사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 조사내용

표본 및 시굴조사에서 유적이 확인되어 발굴조사로 전환된 각 유물산포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결과 Ⅱ지점에서 고려시대 도기가마 1기, Ⅳ지점에서는 석실분 1기, 청자가마 2기 및 부속 폐기장 3기, 조선시대 도기가마 6기 및 폐기장 2기, 주거지 1기, 분묘 6기 소성유구 4기, 수혈유구 4기, Ⅴ지점에서는 조선 후기에 조성된 도기 가마 4기, 소성유구 2기, 가마부속유구 11기, Ⅵ지점에서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도기 가마 1기, 가마부속유구

청자가마 구역 조사 후 전경





1호 가마 연소실 ←  
2호 가마 벽면상태 →

3기와 조선후기로 추정되는 회곽묘 2기, 토광묘 2기를 확인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IV지점에서 조사된 청자가마 2기는 일부 중복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경사지에 위치한 반지하식 등요로 1호 청자가마의 굴뚝부[煙道部]가 유실되었을 뿐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등고선과 직교하게 조성하였다. 1호 청자가마는 경화된 일부 벽체가 잘 남아 있으며, 불터이 확인된다. 번조실(燔造室)의 경사도는 약  $24^{\circ}$ 로 경사도가 심한 편이며 아궁이 아래쪽으로 폐기장이 위치한다. 위로 가면서 좁아지는 장방형이다. 2호 청자가마는 1호 청자가마의 번조실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한 것으로 보이며 굴뚝부에 돌을 두른 후 진흙을 발라 조성하였고, 벽쪽에 경화된 벽체가 남아 있다. 번조실 경사도는 약  $18^{\circ}$ 이다. 특히 2호 청자가마는 1호 청자가마뿐만 아니라 그 부속폐기장을 파괴하고 조성하였으며 청자가마의 폐기장은 총 3기가 확인되었다.

#### 조사성과

청자가마 2기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확인한 유물은 총 656점으로 가마 내부에서 41점, 3기의 폐기장으로 구분하여 수습한 유물은 534점, 지표에서 수습한 유물은 81점이다.

요도구(窯道具)를 제외하고 확인한 유물은 발, 대접, 접시, 잔, 병, 뚜껑이다. 이 가운데 발 197점, 접시 75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용기가 집중적으로 생산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기형의 변화나 문양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가마의 운영시기가 짧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2기의 청자가마에서 출토된 유물과 가마의 구조 등을 바탕으로 파악한 결과 청자가마의 운영시기는 13세기로 판단되며 전체 사업구역에서 발굴 조사한 유적은 현대의 대규모 복숭아 경작으로 인해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 유적은 가마와 부속시설 등이 동반 확인된 생산유적으로 38번 국도 확장공사 구간에서 알려진 '음성 문촌리 유적'과 진천 선수촌건립사업으로 발굴한 '진천 구암리 사장골 유적'과 함께 향후 충북 북부와 경기 남부 내륙에서 청자의 생산과 소비유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토유물

## 특별전 '6인의 시선,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명품 사진전' 개최

**기간** 2020. 09. 07.(월) ~ 11. 08.(일)

**장소** 국립광주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입장료** 무료

\*전시일정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gwangju.museum.go.kr](http://gwangju.museum.go.kr))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2020년 가을 특별전으로 '6인의 시선,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명품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중홍산성 쌍사자석등, 화순 대곡리 출토 팔주령 등 국립광주박물관 상설 전시실에서 오랫동안 관람객을 맞이해 온 대표 유물들을 사진작가의 시선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재해석하는 전시이다.

전시에는 6명의 사진작가가 참여하였다. 오랫동안 사물이나 정물에 천착한 작품활동을 한 작가들로서, 문화재 촬영을 전문적으로 하였거나 문화재를 소재로 한 작품을 제작한 원로 및 중견 작가로 구성되었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 1차로 조사한 작가군을 대상으로 국립박물관과 외부 사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거쳐 구본창, 김광섭, 김수강, 오상조, 이재용, 조성연 사진작가를 선정하였다.

촬영 대상 유물은 국립광주박물관이 추천한 유물 30선 가운데, 지난 5월 한 달 동안 관람객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사진작가들은 국립광주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장고, 전시실, 야외에서 총 24건의 유물을 자유롭게 촬영하였다.

이번 전시를 통하여 그동안 진열장 안에서 관람객과 만나 온 문화재들이 가진 다채로움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관람객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의 예술가인 사진작가들이 과거의 예술품을 만났을 때의 감동을 관람객에게 선사한다.



### 학술대회

## 신안선 출항 700년 준비 세미나 3 “신안선 연구의 현황과 전망”

**시간** 2020. 12. 23(수) 10:00~18:00

**장소**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교육관 1층)

**주최** 국립광주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광주박물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23년 신안선 출항 700년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신안선 출항 700년 준비 세미나 3 “신안선 연구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12월 23일 오전 10시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신안선 및 신안해저문화재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국내 학자의 발표는 신안선 선박(최유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신안선의 명문자료(박예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신안선의 도자기(김영미, 전 국립중앙박물관), 신안선의 비도자기(이용진, 국립중앙박물관) 분야 관련 내용으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해외 학자 위엔취엔(袁泉, 중국 수도사범대), 모리다쓰야(森達也, 오키나와현립예술대학), 윤희나(프랑스 독립학자)가 각각 중국, 일본, 유럽에서의 신안선 관련 연구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립광주박물관 최명지 학예연구사가 신안선 발굴 이후, 40년 여정과 ‘아시아 도자문화 거점’을 지향하고 있는 국립광주박물관의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亚洲陶瓷文化 国立光州博物馆新闻通讯 第十一号

## 要約

### 02 封面故事：世界最著名的中国陶瓷作品：“David Vases”

国立台湾大学艺术史研究所教授施静菲介绍辗转流传到英国的世界最著名的中国陶瓷作品：“David Vases”。这是知名的英国大维德中国艺术基金会(The Percival David Foundation of Chinese Art)收藏的一件藏品，于1929年首度介绍给世人。此瓶由大维德爵士永久收藏，因此被称为“David Vases”，即“大维德花瓶”。根据瓶颈上的纪年青花铭文(中国元代至正11年，1351年)，中文通常称为“至正大瓶”。学者经风格形式分析辨认出其为元代青花瓷，此瓶也成为帮助世人理解世界青花瓷的重要根源，同时作为标示青花瓷发展里程碑纪年标准的瓷器声誉远播。施教授介绍该文物的收藏经过与其在陶瓷史研究上的意义。

### 07 陶磁展览：太平亭与养怡亭

高丽青瓷博物馆学艺研究士曹银精介绍该馆特展《太平亭与养怡亭》。该展介绍高丽时期的建筑材料青瓷瓦与青瓷板。这是韩国首次策划举办高丽青瓷建筑材料展览，办展动机来源于该馆有关部门去年对高丽青瓷博物馆西侧建筑遗址进行调查时发掘出的“太平”铭青瓷瓦。本展摆脱以往“青瓷建筑材料是专供最高统治者享受的顶级奢侈品”这一观点，强调其作为世界上唯一的陶瓷建材演化为一门艺术的境地，证言当时高超的制造技术。

### 09 陶磁发掘：忠清北道阴城郡甘谷C.C营造工程用地遗迹发掘调查

国防文化财研究院调查研究组长李忠烈介绍位于忠清北道阴城郡甘谷面的两座青瓷窑址的发掘成果。通过调查确认，两座青瓷窑炉有部分区段重叠。根

据出土文物、窑炉构造推测，这是13世纪使用的青瓷窑炉。李忠烈期待将本次调查结果与以往的青瓷窑址发掘调查结果进行对比研究，今后为忠清北道北部、京畿道南部内陆生产、消费遗迹研究提供宝贵的资料。

## 10 国立光州博物馆动态

### 本展策划举办特展《六人视线：国立光州博物馆珍藏精品摄影展》

国立光州博物馆自9月7号至11月8号举办2020年秋季特别展览——《六人视线：国立光州博物馆珍藏精品摄影展》，介绍摄影师用镜头重新诠释的国立光州博物馆常设展厅长期展出的镇馆之宝。参展摄影师有具本昌、金光燮、金修康、吴相祚、李在镛、赵晟娟等6位，他们是摄影界的元老，资深摄影师，长期从事事物、静物摄影，或专业拍摄文物、以文物为题材创作作品。本展将为观展人呈现当代摄影师透过镜头邂逅古老艺术品的感动瞬间。

### “学术大会：新安船出港700周年纪念活动筹备研讨会3‘新安船研究现状与展望’”

国立光州博物馆、国立亚洲文化殿堂与国立海洋文化财研究所为筹备2023年新安船出港700周年纪念活动，将于12月23日上午10点在国立光州博物馆大讲堂举行新安船出港700周年纪念活动第三次筹备研讨会，在“新安船研究现状与展望”的主题下，探讨新安船、新安海底文物的相关研究与今后课题。

正文(PDF文件)可在国立光州博物馆官网([gwangju.museum.go.kr](http://gwangju.museum.go.kr))下载。

# アジア陶磁文化

## 国立光州博物館ニュースレター 第11号

## 要約

### 02 カバーストーリー：世界で最も有名な中国陶磁器「デイヴィッド瓶」

国立台湾大学芸術史研究所の施静菲教授がイギリスに伝わった世界で最も有名な中国陶磁器「デイヴィッド瓶」を紹介します。この作品はイギリスのパーシヴァル・デイヴィッド中国美術財団(The Percival David Foundation of Chinese Art)の所蔵品で、デイヴィッド卿のコレクションとなったことで「デイヴィッド瓶(David Vases)」と呼ば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1929年に初めて世界に向けて披露されました。頸の部分には制作年(元代至正11年、1351年)を特定できる銘文が青花(染付)で書かれています。世界の青花白磁の始まりを示す紀年銘作品であることからさらなる名声を得ており、この瓶の様式を分析することで元代の青花白磁を判別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こでは、本作品がデイヴィッド卿の手に渡るまでの経緯や、陶磁史における意味を簡単に紹介します。

### 07 陶磁の展示：太平亭と養怡亭

高麗青磁博物館の曹銀精(チョ・ウンジョン)学芸研究士が、高麗時代の建築材料として使われた青磁瓦と青磁板を集めた特別展「太平亭と養怡亭」を紹介します。韓国で初めて開かれる高麗時代の青磁建材の展示は、昨年高麗青磁博物館の西側にある建物址から「大平」銘の青磁瓦が出土したことを受け企画されたものです。本特別展では、青磁建材が最高権力者の贅沢の極みであったというこれまでの視点から脱し、世界唯一の磁器の建材であることや、芸術作品に昇華した製作技術の高さを物語る文化遺産であることを強調しています。

### 09 陶磁の発掘：陰城 甘谷C.C(ゴルフ場)造成予定地内の遺跡発掘調査

国防文化財研究院の李忠烈(イ・チュンリヨル)調査研究チーム長が、忠清北道(チョンチョンブクト)陰城郡(ウムソングン)甘谷面(カムゴクミョン)の青磁窯2基の発掘成果を紹介します。本調査で発掘された2基の青磁窯は一部が重なった状態で見つかり、出土品や窯の構造などから13世紀に使われていたと

推定されます。今後、忠清北道北部と京畿道(キョンギド)南部内陸の生産遺跡と消費遺跡の研究において、すでに発掘が行われた青磁窯跡と比較することで貴重な資料となるものとみられます。

## 10 国立光州博物館のニュース

### 特別展「6人の視線、国立光州博物館所蔵品写真展」開催

国立光州博物館は秋の特別展として「6人の視線、国立光州博物館所蔵品写真展」を9月7日から11月8日まで開催します。本展は、国立光州博物館常設展示室の代表的な展示品に写真作家の視点でスポットをあてるもので、具本昌(クボンチャン)、金光燮(キム・グァンソプ)、金修康(キム・スガム)、吳相祚(オ・サンジヨ)、李在鏞(イ・ジェヨン)、趙晟娟(チヨ・ソンヨン)の6人の作品が紹介されます。彼らはいずれも長年にわたって物取りをしてきた作家の中、文化財の撮影や文化財を素材にした作品の制作をしてきたベテラン作家で構成されました。今回の展示を通して、現代の芸術家が過去の芸術に出会ったときの感動を伝えられるでしょう。

### 学術大会\_新安船出航700年準備セミナー3「新安船研究の現状と展望」

国立光州博物館と国立アジア文化殿堂、国立海洋文化財研究所は、2023年新安船出航700年記念事業に向けた体系的な準備を進めるため、「新安船出航700年準備セミナー3『新安船研究の現状と展望』」をテーマに、12月23日午前10時から国立光州博物館大講堂でセミナーを開催する計画です。セミナーでは、新安船および新安海底文化財に関連したこれまでの研究を振り返り、今後の課題について討論する予定です。

原文(PDFファイル)は国立光州博物館ホームページ [gwangju.museum.go.kr](http://gwangju.museum.go.kr)でダウンロードできます。

# Asian Ceramic Culture

## ABSTRACT

### 02 Cover Story

#### The David Vases: The best-known Chinese Porcelain in the World

Ching-fei Shih, a professor with the Graduate Institute of Art History at National Taiwan University, introduces the David Vases, the most widely-known examples of Chinese porcelain in the world. Housed in the collection of the Percival David Foundation of Chinese Art, these vases were first revealed to the world in 1929. They are named after their famous collector, Sir Percival David, who acquired the permanent ownership of the vases. On their necks are dated inscriptions (1351, the eleventh year of the Zhizheng reign of the Yuan Dynasty) in cobalt-blue underglaze. It is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vases that the style of blue-and-white porcelain from the Yuan Dynasty (1279–1368) was codified. The vases are also significant in that they are regarded as the most refined examples of the early blue-and-white porcelain with dated inscription. Shih briefly introduces the provenance of the vases as well as their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ceramics.

### 07 Exhibition

#### *The Taepyeongjeong and Yangjeong Pavilions*

Cho Eunjung, a curator at the Goryeo Celadon Museum, introduces *The Taepyeongjeong and Yangjeong Pavilions*, a special exhibition drawing together celadon architectural elements from the Goryeo Dynasty (918–1392), including roof tiles and plaques. The first exhibition of its kind to be held in Korea, it was conceived and organized following the discovery of a celadon roof tile with the inscription “大平” (taepyeong) during the survey of a building site at the west side of the museum last year. In contrast to the prevailing perspective that simply views celadon architectural elements as an extravagance enjoyed exclusively by people of the highest social rank, the exhibition highlights them as the world’s only porcelain example of architectural element and as cultural heritage evidencing advanced production technologies sublimated into works of art.

### 09 Excavation

#### *Survey of Remains Found at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Gamgok Country Club in Eumseong*

Lee Chungryl, Head Researcher at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Military Heritage, introduces the achievements of the excavation of two celadon kilns in Gamgok-myeon, Eumseong-gun County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The two kilns have been revealed to be partially overlapping. Based on the relics uncovered and the

structure of the kilns, it is presumed that they operated in the thirteenth century. Following a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celadon kiln sites, the excavation results are expected to serve as a valuable resource for the study of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eramics in the northern region of Chungcheongbuk-do Province and the southern reaches of Gyeonggi-do Province.

### 10 Gwangju National Museum News

#### Inauguration of the Special Exhibition

#### *Six Perspectives: A Photo Exhibition of Masterpieces from the Gwangju National Museum*

The Gwangju National Museum is presenting *Six Perspectives: A Photo Exhibition of Masterpieces from the Gwangju National Museum* as its fall special exhibition from September 7 to November 8, 2020.

This exhibition newly illuminates and reinterprets major items from the collection of the museum that have long been enjoyed by visitors in the permanent galleries. The six participating photographers – Koo Bohnchang, Kim Kwang seop, Kim Sookang, Oh Sangjo, Rhee Jaeyong, and Jo Seongyeong – are established artists who have extensive experience photographing still lifes or materials, or are professionals who have either specialized in photographing cultural assets or produced works based on them. This exhibition will convey to visitors the emotional excitement that these photographers – artists of the present – experienced when they encountered artworks from the past.

#### Preliminary Seminar 3: Preparing for the 700th Anniversary of the Departure of the Sinan Shipwreck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Research on the Sinan Shipwreck”

In efforts the systematically prepare for the 700th anniversary of the departure of the Sinan Shipwreck, the Gwangju National Museum, Asia Culture Center, and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plan to hold Preliminary Seminar 3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Research on the Sinan Shipwreck” at the auditorium of the Gwangju National Museum at 10 a.m. on December 23. The seminar will review the status of current research on the Sinan Shipwreck and its maritime cultural heritage and discuss future tasks.